호국대룡의 의지와 원자력 연구개발

신라의 제30대 임금인 문무왕은 삼국통일의 초석을 마련한 태종 무열왕의 뜻을 이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나당전쟁에서 승리하여 신라의 삼국통일을 완수한 지도자이다.

문무왕은 태자시절 백제의 수도 사비성 공격에 참전하여 함락시켰으며, 태종 무열왕이 승하한 661년에 왕위에 올라 당나라와 함께 백제의 부흥운동을 저지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당나라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신라군을 운용하여 신라의 지배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이후에는 평양성을 포위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나 당나라와의 대결도 염두에 둔 문무왕은 고연무, 안승 등 고구려계와 협력하여 당나라를 몰아내었다.

나당전쟁으로 삼국시대를 종결시킨 이후 문무왕은 승하하였는데, 이때 남긴 유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동해의 용이 되어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들을 막아 신라를 수호하겠다'라고 언급했던 내용이다. 이는 죽어서도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생각하는 문무왕의 진심을 엿볼 수 있다.

문무왕이 평소에 항상 지의법사에게 이르기를 "짐은 죽은 뒤에 호국대룡(護國大龍)이 되어 불법을 받들고 나라를 수호하고자 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동해 바다에 능을 조성하였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와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1차 에너지 소비국가이며 그 소비량의 90%가 넘는 에너지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곤국이다. 에너지 수급문제는 '비상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은 원자력발전이다. 실제로 미국은 에너지 문제를 국가 안보 정책 수립의 핵심적인 요소로 규정한 바 있으며, 영국은 원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안보 요구에 부응하는 목적에 맞추고 국익에 부합해야한다'며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원전 안전 혁신기술, SMR 등 미래지향적 원자력연구개발을 위해 지난 7월 21일에 착공된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사후에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가득했던 문무대왕의 뜻을 빌어 원자력을 통한 국가 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KAIF